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241
JCCT 2020-2-30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 본 해부학과 미술의 만남

Convergence between Anatomy and Fine Art through a Painting by Rembrandt

정원

Jung Won

요약 16세기에 말에 들어 해부학의 중심지로 부상한 네덜란드 레이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해부학 극장이 개관되었다. 새롭게 시작된 인체 해부 활동은 의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청중으로 하여 진행된 공개 해부 시연은 해부 관람이 하나의 고급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레이던에서 시작된 해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암스테르담으로까지 퍼졌고,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에서 직접 해부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틸프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했던 인물이었다. 틸프는 의사이자 의료 행정 개혁가로도 큰 업적을 남겼고, 그의 해부 강연은 암스테르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부 강연에 의해 인체 해부는 정그러운 광경이 아니라 문화 시민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렘브란트가 작품의 주제로 틸프가 시체를 해부하고 있는 광경을 선택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읽어내고 화폭에 담아내면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주요어 : 해부학, 네덜란드, 틸프, 렘브란트, 해부학 극장

Abstract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Theatrum Anatomicum or anatomical theatre opened in Leiden in the Netherlands. The theatre was open to a fee-paying audience of students, surgeons, and the public and soon settled down as one of the highbrow cultural activities in the city. This trend soon spread into Amsterdam, and Nicholaes Tulp appearing in Rembrandt van Rijn's <The Anatomy Lesson of Dr. Nicholaes Tulp> was at the center of it. Human anatomy was not just an eyesore but started to get accepted as a cultural event for the civilized citizens of the time. It was with this backdrop that Rembrandt got inspired by this interesting scene of Tulp dissecting human body. Rembrandt well understood the changes of the time and captured them on canvas to attempt convergence between science and art.

Key words : Anatomy, The Netherlands, Tulp, Rembrandt, Anatomical Theater

1. 서론

19세기 후반부터 과학은 문학 작품의 소재 및 주제가 되며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기

실험을 소재로 해서 인조인간과 그 제작자의 이야기를 다룬 『프랑켄슈타인』이나 최신 과학 이론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던 『셜록 홈즈』 시리즈의 인기는 당시의

*정회원,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9년 11월 21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Received: November 21, 2019 / Revised: December 06, 2019
Accepted: December 16, 2019
*Corresponding Author: jwon@jbnu.ac.kr
Dept. of Science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 Korea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그 분위기를 활용했음을 보여준다[1, 2].

문학과 과학의 융합이 19세기의 현상이었다면 미술과 과학의 융합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이 수학을 활용한 원근법을 창작 과정에 활용해 새로운 회화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3, 4]. 하지만 근대 초의 미술과 과학의 융합은 원근법과 같은 기법 및 방법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과학자와 과학 활동의 장면은 근대 초부터 미술의 소재 및 주제로도 활용되며 두 분야의 융합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5, 6].

본 논문에서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작품 활동을 벌였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해부가 진행되는 광경을 묘사한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에 해부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결국 대작의 소재가 되기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틸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대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밝혀 볼 것이다.

II. 해부학과 생리학 혁명

과학의 역사에서 16-17세기는 ‘과학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이라 불리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던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큰 변혁을 거쳤다. 역사가들은 이 변화를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이 모두 이 혁명에 동참했던 인물들이며, 이들의 연구를 통해 우주와 운동을 이해하는 근대적인 지식 체계가 등장했다. 물론 이 기간에는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 과학사학자들은 이 변화를 생리학혁명이라 부른다.

서양에서 17세기 이전까지 약 2000년간 의학 이론을 지배했던 인물은 고대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자 갈레노스(Galen of Pergamon)였다. 갈레노스는 인체를 소화계, 호흡기계, 신경계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각각의 계통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영(spirit)을 제시했다. 자연의 영(natural spirit), 생명의 영(vital spirit), 영혼의

영(animal spirit)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첫 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두 영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영은 자연의 영이었다. 자연의 영은 다름 아닌 피였다. 갈레노스는 자연의 영인 피가 소화된 음식을 재료로 하여 간에서 만들어지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전부 소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레노스 인체 이론 체계를 대체할 주장을 제안한 사람은 17세기 초 영국의 의사였던 하비(William Harvey)였다. 하비는 1628년에 출판한 저서 『동물의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논고』(*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 1628)에서 “피가 심장에서 출발하여 온몸을 거친 후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운동을 한다”는 피 순환 이론을 제안했다. 그런데 하비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당시에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한 해부학적 지식들이 있었다. 하비는 생리학혁명의 또 다른 주인공인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강의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University of Padua)에서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생리학 혁명은 해부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7].

아래 그림 1은 코페르니쿠스의 유명한 저작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와 같은 해인 1543년에 출판되어 생리학혁명 혹은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받는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의 저서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 표지이다.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는 해부를 통해 발견된 증거들에 입각해 갈레노스의 인체 이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새로운 인체 이론이 제안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개방된 상태의 시체가 놓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생리학 혁명을 시작했다고 평가받는 저서에서 해부 광경을 묘사하는 그림을 표지로 사용했다는 점은 베살리우스 스스로가 자신의 해부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베살리우스,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의 표지.
(출처 : 위키피디아)

Figure 1. Andreas Vesalius, Cover image of *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 (Source : Wikipedia)

베살리우스는 그 이전까지 유럽에서 금기시되던 인체 해부 전통을 부활시켜 본격적인 해부학 연구에 뛰어들은 인물이다. 15세기까지 의사들은 손을 써서 수행하는 해부를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에는 서양인들의 세계관과 지식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손을 쓰는 작업을 무시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손을 써서 하는 작업도 꺼림칙한데 더군다나 인체 해부는 인간의 시체를 만지면서 해야 하는 행위였으니 당시의 의사들이 해부를 등한시 한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8]. 고대 및 중세에 의사란 철학적으로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자 피를 만지며 수술을 하거나 해부를 하며 시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는 과학혁명 이전의 의사들이 지금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내과 의사의 성격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내과 의사에 지칭하는 영어 단어는 physician인데, 이는 physics 즉 자연학에 통달한 의사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살리우스와 같은 몇몇 의사들이 해부를 수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살리우스는 자신이 직접 해부를 수행하면서 갈레노스의 이론이 인체 해부가 아닌 개나 원숭이와 같은 다른 대상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손을 써서 획득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체 해부를 실시하면서 베살리우스와 그의 제자들은 갈레노스가 설명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인체 기관의 구조들이 밝혀냈다. 이 결과로

베살리우스가 몸담고 있었던 파도바 대학은 16세기에 새로운 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해부에 대한 관심이 의사들을 넘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부학의 중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곳은 바로 17세기의 네덜란드였다.

III. 네덜란드의 해부학 극장

16세기 해부학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이었다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해부학 중심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곳은 네덜란드의 레이던(Leiden) 대학이다. 16세기 말 개교한 레이던 대학에서는 당시 새로운 학문 사조를 적극 반영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는 의학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레이던 대학의 의학부는 새롭게 정보가 입수되기 시작한 전 세계의 약용 식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정원과 온실을 갖춘 식물원을 개원했으며, 해부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에 해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실제적인 식물연구와 해부는 네덜란드에서 자연사(natural history)와 의학이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9].

레이던 대학에 식물원과 해부학 강의실이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이 대학 의학부에 퍼져있던 학문적 분위기가 있었다. 신생 대학이었던 레이던 대학 의학부에서는 다른 유럽 대학을 지배하고 있던 갈레노스 주의가 아닌 히포크라테스 전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갈레노스가 인체 구조이론에 기초한 철학적인 설명을 제시했다면, 더 고대의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증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강조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유보하는 경험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던 인물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치료를 위한 경험적 접근에서 적절한 약재를 사용해야 함을 지적했고, 이는 식물학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레이던 대학의 당국자들은 대학 안에 식물학 연구를 위한 정원과 식물원 설립을 추진했다.

레이던 대학에서 식물원에 대한 관심을 해부로까지 확장시킨 인물은 1589년 임시 식물학 교수로 합류했던 파우(Piter Pauw)였다. 파도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귀국했던 파우는 정원과 식물원 관리에 힘을 쏟음과 동시에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새로운 의학 연구 방식인 해부를 도입하는 데에도 열정적이었다. 레이던 대학에 합류한 첫해 겨울, 그는 공개 해부를 시연했

다. 그 당시에는 시체 처리 기법이 개발되지 않아 날씨가 따뜻한 기간에는 시체의 부패로 인해 해부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파우는 겨울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해부는 과거에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에서 진행되었고, 이 장소는 이후에 파우의 해부학 강의실이 되었다. 유명한 레이던 대학 해부학 강의실은 이렇게 설립되었다.

아래의 그림 2는 17세기 당시의 레이던 대학 해부학 강의실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운데에 시체를 놓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위에 계단 형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16세기의 베살리우스 저서 표지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17세기에도 해부는 중앙에서 몇 명이 실제 해부를 수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위에서 이 과정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부학 강의실 주위에는 여러 동물들과 사람의 뼈가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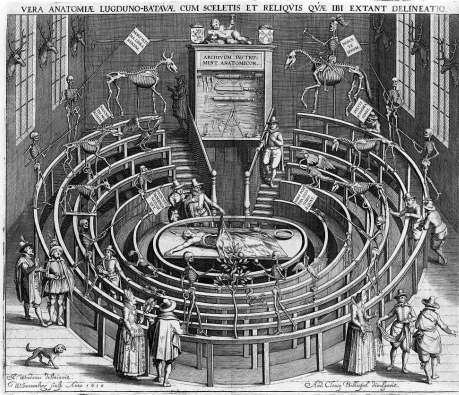


그림 2. 17세기 레이던 대학 해부실의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

Figure 2. The anatomical theatre of Leiden University in the 17th century. (Source: Wikipedia)

위 그림에서 주목해볼 부분 중 하나는 시체 주위를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해부학 강의실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확실해진다. 사람들 가운데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확인되는데, 17세기에 여성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어리둥절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공간의 명칭 속에 숨어있다. 레이던 대학에서 해부가 행해지는 공간의 공식 명칭은 theatrum anatomicum, 즉 해부학 극장이었다. 이 명칭은 중앙 상단 현판에 명시되어 있다.

사실 레이던 대학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고 있었던 80년 전쟁에서 레이던 시민들이 적군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내며 항전했던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설립된 대학이었다[10]. 이러한 배경 때문에 레이던 대학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레이던 대학은 보통 때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기념일이나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출입이 허가된 곳 중 하나가 해부 강의실이었다.

처음에는 강의실만 공개됐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부 광경을 직접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레이던 대학 당국은 축제 기간에 해부를 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시민들은 입장료를 내고 해부실 관람석에 앉아 의대 교수가 수행하는 해부를 실제로 목격하며 인체의 신비에 관한 공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해부를 참관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특별한 축제 기간에 음악회나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한 행위였다. 이러한 역할을 했던 해부학 극장은 그 명칭에 걸맞게 지식 전달과 함께 신기함을 체험케 해주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IV. 렘브란트 작품의 주인공이 된 해부학자

레이던 대학 해부학 극장의 명성은 17세기 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던 암스테르담(Amsterdam)까지 퍼졌다. 많은 시민들이 해부 광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새로운 지식을 즐기고 향유하게 되면서 해부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으로도 파고들었다[11]. 그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는 해부 광경을 묘사한 그림의 유행이다.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해부 광경이나 해부학 극장을 묘사하는 미술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 시기에 그려진 해부 광경을 구현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아래의 그림 3, 렘브란트(Rembrandt H. van Rijn)의 <윌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일 것이다[12]. 네덜란드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캔버스에 구현해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 렘브란트는 시체를 중앙에 배치시키고, 한 인물이 그 시

체의 근육 조직을 해부하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냈다. 작품에서는 창백한 시체와 호기심에 가득 찬 관람객들의 얼굴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으며, 구경하는 사람들의 놀란 얼굴과 확신에 차 지식을 과시하는 듯한 해부학자의 표정도 흥미롭다[13]. 작품의 제목을 보면 아마도 이 해부학자는 윔프(Nicolaes Tulp) 박사일 듯하다. 과연 이 인물은 렘브란트의 상상의 산물이었을까? 아니면 실존하던 인물이었을까?



그림 3. 렘브란트, <윔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1632.
(출처 : 위키피디아)

Figure 3. Rembrandt H. van Rijn, <The Anatomy Lesson of Dr. Nicolaes Tulp>, 1632 (Source: Wikipedia)

대학 도시 레이던 해부학의 상징적 인물이 파우였다면 윔프는 상업 도시 암스테르담의 해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윔프(Nicolaes Tulp)는 1593년에 태어나 레이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며 암스테르담 시장까지 역임했던 실존 인물이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 진료 활동을 통해 명성을 쌓아나갔으며, 이와 동시에 정치적인 활동도 시작했다. 윔프는 1622년 암스테르담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치안 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적 활동과 더불어 윔프는 네덜란드의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다양한 활동도 수행했다. 그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지만 치료 현장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당시에 외과의(surgeon)라고 불렸던 치료 전문가들과 산과, 약제사 등의 경험에 입각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인체 이론에 입각한 이론적인 의학을 배격하는 레이던 대학의 학풍의 영향이었다[14]. 하지만 윔프는 현장의 의료 활동가들의 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체계적인 교육 또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7명의 내과의

들과 협력하여 의학교 설립을 제안할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제안을 시의회에 넘겨 결국 관철 시켰다.

윔프의 제안에 기초해 세워진 기관은 암스테르담 의학교(Collegium Medicum)였다. 1638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먼저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약물들의 목록인 약전(pharmacopoeia)을 정리해서 발표하며 약제사들이 의사의 처방한 바에 따라 약전 내의 물품만을 사용해 약을 조제하도록 규제했다. 이와 더불어 의학교는 외과의와 산과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외과의와 산과, 약제사들 또한 자신들의 치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학교의 활동에 적극 호응했다[15].

의학교 개교에 성공한 윔프는 곧바로 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내세워 암스테르담에 시가 운영하는 식물학 정원이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난색을 표하던 시장도 결국 윔프의 요구를 수용했고,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 1645년 암스테르담 식물원이 개관했다.

윔프의 마지막 요구는 해부학 극장의 설립이었다. 레이던에서 해부학 극장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시 당국자들은 암스테르담 해부학 극장 설립에 대한 요청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 의학교가 세워진 이듬해인 1639년 바로 해부 시연이 시작되었다. 해부학 극장에서 해부를 시연한 사람은 바로 윔프 자신이었다. 윔프가 시연한 해부 강연은 외과의와 같은 의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한 예로 1647년에 5일간 진행된 해부 강연에서는 일일 평균 200여명의 관객이 입장했고, 입장료 수입은 229길더(2018년 기준 2,771 유로에 해당)에 달했다. 윔프는 해부 강연을 진행하며 최신 의학적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해부를 통해 확인되는 인체 구조의 세세함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경험에 입각한 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렘브란트 해부 광경을 묘사한 그림을 완성한 시기는 1632년으로 아직 윔프가 의학교와 해부학 극장을 열기 전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의뢰받았던 렘브란트가 윔프라는 인물이 해부 집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는 것은 이미 윔프와 그의 해부 연구가 암스테르담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었음 짐작하게 해준다. 또

한 해부라는 행위가 단순히 의학을 위한 전문적 활동이 아닌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16]. 해부 광경을 그려냈던 렘브란트는 이후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갔고, 그 그림의 주인공이었던 킬프는 암스테르담의 진료 풍토를 바꾸어 낸 의료 행정가이자 가장 유명한 해부학 강연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V. 결 론

16세기 초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인체 해부는 생리학 혁명의 토대가 되며 과학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체 해부 활동이 과학 이론의 변화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16세기에 말에 들어 해부학의 중심지로 부상한 네덜란드 레이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해부학 극장이 개관되고, 그곳에서 공개 해부 시연이 진행되며 해부 관람이 하나의 고급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레이던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 암스테르담으로까지 퍼졌고, 킬프라는 인물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했던 인물이었다.

렘브란트가 작품의 주제로 하필이면 시체를 해부하고 있는 광경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체 해부는 보고 싶지 않은 징그러운 광경이 아니라 문화 시민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직접 참관해 보고 싶은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것을 화폭에 담아냈던 것이다.

명화의 주인공이었던 킬프는 이후에 암스테르담 의료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갔으며, 명화의 작가는 네덜란드 미술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앞선 해부학 연구를 앞세워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 의학과 관련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미술과 해부학의 융합의 원인이자 결과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해부학과 미술에 대한 대중의 큰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References

- [1] Francis O’Gor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2] Hyunil Jung, “Finding the Research Possibilities of Computer Technologies in Ar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 51-57, 2018.
- [3] John W. Shirley and F. David Hoeniger, *Science and the Arts in the Renaissance*, Folger Books, 1985.
- [4] J. V. Field, *The Invention of Infinity: Mathematics and Art in the Renaiss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5] Lorraine Daston eds, *Things That Talk: Object Lessons from Art and Science*, ZONE BOOKS, 2004.
- [6] Lorraine Daston eds, *Biographies of Scientific Objec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7] Paula Findlen, “Anatomy Theaters, Botanical Gardens, and Natural History Collections”, Katharine Park and Lorraine Dasto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3,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2-289, 2006.
- [8] Pamela H. Smith, *The Body Of The Artisan: Art and Experience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9] Willem Frijhoff and Marijke Spies, *Dutch Culture in a European Perspective*, Vol. 1, 1650: *Hard-Won Unity*, Royal van Gorcum, 2004.
- [10] Maarten Prak,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11] Cheon-Young Kim, “A Study on the Cultural Contents Planning Mode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1, pp. 75-84, 2018.
- [12] Carmen Niekrasz and Claudia Swan, “Art”, Katharine Park and Lorraine Dasto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3,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73-796, 2006.
- [13] Lorraine Daston, “Objectivity and the Escape from Perspective”, Mario Biagioli eds, *The Science Studies Reader*, Routledge, pp. 110-123, 1999.
- [14] Harold J. Cook, “Time’s Bodies: Crafting th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of Naturalia”,
Pamela H. Smith & Paula Findlen ed.,
Merchants and Marvels: Commerce, Science, and
Art in Early Modern Europe, Routledge, pp.
182-200, 2002.

- [15] Harold J. Cook, *Matters of Exchange: Commerce, Medicine, and Science in the Dutch Golden Age*, Yale University Press, 2007.
- [16]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VINTAGE BOOKS, 1997.